

I 서론

성경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교훈을 잠언 16:31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고 하였고, 잠언 20:29에서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यो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 라고 하였다. 즉 노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광이 백발에서 나타나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때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은 존경의 대상으로 레위기 19:32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였고, 잠언 23:22에서는 너 낡은 아비에게 칭송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 지니라 고 하였다. 신명기 28:50절에서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보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다. 또 신약의 딤편 5:1-4절까지에서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의 교회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너무 핵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노인을 존경하고 효를 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노인을 성경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신명기 32: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 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르다, 에레미야 6: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곧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에베소서 6:1-3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하리라 . 즉 노인을 공경하는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 받는 민족이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기독교적 방법이다.

또한 성경은 시편 90:10에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이다 라고 하며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다. 열왕기상 1:1에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지라. 하였고 시편 71:9,18에서는 노인의 외침이 있는데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사야 46: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엿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고 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노인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에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첫째로는 노인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킴이 그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은 신앙이 성숙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한 준비 교육 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앙의 성숙단계를 소개하고 자신의 신앙 정도를 점검하며 성숙시키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리한 것을 참고하여 노인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정리하며 자손들에게 물려 줄 이야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노인들을 가정 밖의 생활보다는 다는 가정 안에서 어른으로서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일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I 본 론

좋은 조직 체계와 학문, 흥미로운 교재, 정확성 등 감탄할 정도로 우수한 질을 자랑하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교재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결합시켜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수한 기독교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징을 결정하는 지에 대하여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진정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내용인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성경의 빛에 비추어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프로그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한다.

1. 기독교 프로그램의 기준

① 성경을 그 기초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성경 말씀만이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완전한 법칙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직접 교재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먼저 성경 본문이 프로그램 과정 안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경이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사용되어야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배워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원칙을 제공하는 지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추론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5 모든 이론을 꺾으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꺾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② 일관성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성경 구절을 첨가하고 기독교적 주제에 대하여 논하며 도덕적인 특징들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해서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철학과 가치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밝히 보여 주며 독특한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프로그램의 내용들과 가르치는 방식 속에서도 반드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다.

그 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접근법은 바로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삼위 일체와 창조, 타락, 구속 등의 교리들은 직접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에 접근되어야 한다.

③ 하나님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진리가 기독교 프로그램의 기준이므로 각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해하시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통합을 특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 분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진리의 조직을 드러내시므로 기독교 프로그램은 일관성 있는 통일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프로그램 전체를 뒷받침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의 질서를 반영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 세상의 모든 관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이 지식의 각 부분들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더욱이 이 통합은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④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프로그램은 곧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프로그램은 배우는 대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배우는 이의 전 인격적인 면, 즉 영과 정신과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기독교 프로그램은 그리스도께서 프로그램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각각의 프로그램 속으로 녹아 들어가 융합되어야 하며 배우는 이

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건전한 가르침이 선한 행위를 낳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간과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세상 학문에 대한 보충적인 개념의 의미로서 첨가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반드시 씨실과 낱실처럼 프로그램 안의 직물 속으로 짜들어 가야 한다.

⑤ 기독교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 프로그램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성숙이 얻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의 목표는 단순히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중립적인 진공 상태에서 살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훈련하도록 동기 부여되고 격려를 받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교육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2. 노인교육 프로그램

1) 노인의 신앙형태 분석하기

노인 자신의 신앙적인 수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재 자신의 신앙형태를 알아 신앙의 단계를 높여 주어 진정한 예배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

① 딸의 신자

시편 65: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딸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 하 리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 에레미야 26:2 여호와와가 이 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말을 모두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뜰 안에 들어 왔어도 악행을 떠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이사야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한계시록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 하지 말고 그냥 두라

딸의 신자는 딸 안까지 들어오도록 복을 받았으나 안까지 들어가지 못 하면 결국은 어둠으로 내어 쫓김을 받게된다.

딸의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긴 하였으나 아직 율법에 매여 있으며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복만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함에도 고치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으로 사는 단계의 사람이다.

② 속죄(회개)의 단계의 신자

.레위기 4:32 그가 만일 어린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 컷을 끌어다가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가복음 24:47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를 통하여 생명과 연결이 되며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치유와 동시에 생명을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을 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자라게 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에서 자기의 고집이 없어지고 나의 자아, 옛 사람의 모습, 나의 성이 무너지게된다.

이 단계는 딸의 신자에서 한 단계 높아진 단계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주의하여 보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번제 (헌신) 단계의 신자

.출애굽기29:25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 사르라 이는 여호와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1:9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열왕기상 18:38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은 닦은지라.

.역대상 21: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고린도후서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단계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먹어 깨달아 눈과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져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단계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되며 나는 완전히 없어지어 흔적도 없이 되면서 마음 속안의 믿음이 생활로 살아가며 하나님에 신실, 충실, 진실함으로 열매가 맺히지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④ 감사단계의 신자.

.시편 50:14, 23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4: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하리 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 이다.

.마태복음 5:14, 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 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헌신을 잘해도 마음 상하고 자기 안에 만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만족은 감사할 때 생겨진다. 빛이 날수록 나의 연약함이 들어 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가리워 놓으시고 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

2) 디모데후서3:1-9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형태분석하기

(심명구,2002)

디모데후서3:1-9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 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
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 하며 절제하지 못
하며 사 나누며 선한 것을 좋아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 하며 쾌락을 사
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를 유인하는 자 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
에 끌린바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 운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임이니라.

No	제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없다	합계
01	자기사랑					
02	돈 사랑					
03	자 궁					
04	교 만					
05	혜 방					
06	부모거역					
07	감사없음					
08	거룩무					
09	무 정					
10	원 통					
11	참 소					
12	절제못함					
13	사 나 음					
14	선 싫 음					
15	배 반					
16	조 급 함					
17	자 고					
18	쾌락사랑					
19	경건부인					
20	남집잘감					
	총 계					

- ※ 계산방법 (1)항상그렇다(3점) (2) 자주그렇다(2점) (3)가끔그렇다(1) (4)전혀없다(0)
- . 갈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 엡4:22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 . 약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 . 롬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 . 롬8:13너희가 육신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나

전체점수20개항

- 50-60점 100% 욕의 사람
- 35-50점 70% 욕의 사람
- 20-35점 50% 욕의 사람
- 10-20점 20% 욕의 사람
- 10점이하 10% 욕의 사람
- 100%영의 사람은 아무도 없음

3)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 강의하기
(한화룡역.1986)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제사는 형식과 의문의 죽은 예배에 불과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의 산당 제사는 우상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① 신령의 예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영이다. 이와 유사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 표현 중의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빛이시라(요일 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16),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히 12:29).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두 하나님의 행동(action)과 활동 양식(the mode of work) 및 속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사랑이다’ 는 것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① ‘하나님은 영이시다’ 는 말은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한다’ 또는 ②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 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제와 관한 진술이므로 ①의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the Spirit)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차원을 초월한 존재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영은 육체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영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영으로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고자 한다면, 사람 역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오직 영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영의 세계에 무지하던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동적 활동 속에 이루어진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자들도 성령 안에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경배한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진행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루어진다. 베드로전서 2:5은 이 사실에 대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신령한 집”으로, 기독교의 예배를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였다.

② 진정의 예배

진정으로 드림 이는 주관적 감상주의로 드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예배자는 진리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이 결여된 예배는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의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단순한 추상도, 상상도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거룩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간다(고전 14:15).

요한복음 1:14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고, 또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고 하였다. 또 14:6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뜻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복음이다. 천국의 언어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를 좀 더 좁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의 예배는 기록된 성서의 말씀만으로 드러지는 예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전적으로 성서에 그 기초를 두고 세워져 있다.

교회예배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열납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단계가 헌신과 감사의 단계까지 가야 가능하다고 본다.

로마서8:13,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4)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나의 인생의 내용 정리하기

(심명구,2002)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정리하여 이에 비추어 자신에게 일생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만들어 되돌아보기도 하며 집안의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준비를 하게 한다.

① 아브라함의 여정

㉠ 갈대아우르

창세기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 하란

창세기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 가나안

창세기 12:5 아브람이 그 아내와 그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② 아브라함의 구별

창세기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③ 아브람의 물질 시험

㉠ 애굽

창세기12:10-2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
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 하였음이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 롯

창세기 13:1-13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 전리품

창세기 14:13-24 중 21절부터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 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 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 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 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
하리라.

점차적으로 물질을 초월해 가는 아브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④ 아내에 대한 시험

㉠ 누이라 속임

창세기12:12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
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
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 하갈과 동침

창세기16:1-6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
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 또 누이라 속임

창세기20:1-7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
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⑤ 후사에 주심

㉠ 엘리에셀

창세기15:2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 자하
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니이다.

㉡ 이스마엘

창세기16: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
름 하여 이스마엘 이라 하였더라.

㉔ 이삭

창세기21:1-7 중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서는 후사를 종이 아닌 종의 이들도 아닌 약속의 아들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약속의 아들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후에 되어졌다.

⑥ 친척과의 관계 (롯 과의 관계)

㉕ 물질관계

창세기 13:1-13 중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 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 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㉖ 포로 됄을 구함

창세기 14:13-36 중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 도 사로잡고 그 재물
까 지 노략하여 갔더라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 왔더라.

㉗ 멸망하지 않도록 간구

창세기18:16-33 중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만 말씀하리 이다.

데려가지 말라는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계속 롯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정은 끊어야 할 때도 있음을 알게 한다.

⑦ 신앙에 관하여

㉘ 말 씀

창세기12:4-5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 좃아갔고

㉙ 단을 쌓음

창세기12: 7,8 13:18, 22:9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
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

㉚ 이름을 부름

창세기12: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
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13:4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말씀을 좃아갔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⑧ 가나안에서 오래 거주했던 곳들

㉠ 뻘엘

창세기12:8 거기서 뻘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뻘엘이요 동은 아이
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더니

㉡ 헤브론

창세기13:18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
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 브엘세바

창세기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이사 갈 때마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다.

⑨ 아브라함과 샘물

㉠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

창세기16:7 여호와와 그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 양

창21:25-30중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 양 새끼 일곱을
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받

㉢ 며느리

창세기24:11 그 약대를 성 밖 우물곁에 꿰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던더라.

아브라함은 우물곁에서 중요한 일들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⑩ 아브라함과 나무

㉠ 상수리 나무

창세기12:6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본래 심겨져 있는 나무)

㉡ 에셀나무

창세기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
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으며

남

㉢ 번제

창세기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
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과

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⑪ 아브라함과 불

㉠ 햇불

창세기15:9

㉡ 소돔의 불

창세기23: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 번제의 불

창세기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⑫ 아브라함의 처와 자녀

㉠ 사라와 이삭

창세기17:15-22 중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 하갈과 이스마엘

창세기16:1-6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dldogkao 그가 자기의 잉태를 깨닫고 그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

㉢ 드두라와 자녀들

창세기25:1-6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이름은 그두라 라 ...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상과 같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에 개입하심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참고로 하여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의 주요한 일들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본인의 변해 가는 과정들을 정리하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 들려줄 가정의 역사를 만든다.

5) 세대간 프로그램

노인교육 프로그램 중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마련한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실 맺고 믿음을 유업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기를 간구하며 노인들이 초대하는 형식으로 한다. 각각 다른 방에서 아래세대, 노인들 따로 강의를 듣고 이날은 교육받고 있는 노인 쪽에서 주관자가 되어 식사와 이벤트를 준비한다.

준비 ; .준비위원 기도모임으로 시작(약 한달 전부터)

.초대장 만들기, 음식, 다과, 차, 선물, 꽃다발, 적합한 이벤트 등등

. 선물, 이벤트등 프로그램을 비밀로 한다.

.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당일순서 ①같이 경배와 찬양

② 식사

③ 따로 각방에서 강의

아래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효

노인세대: 용서하고 용서받기

④이벤트: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 용서하고 용서를 구 하는 일을 교육 받고있는 노인 쪽에서 주체가 된다.

. 알맞은 환경준비(촛불, 의자배열, 휴지, 이벤트에 쓰일 도구, 나레이션등

등)

. 십자가에 못박기. 세족식, 허깅, 찬양, 율동등 준비

. 용서를 마무리하는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행한다.

⑤ 숨겨두었던 꽃다발, 준비한 선물주기

.찬양팀은 은은한 축하의 찬양으로 분위기 형성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축제 의 찬양과 율동

⑥ 목사님의 축도

이외에 참석하는 사람들, 교회, 장소 등 형편에 따라 프로그램을 더욱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 세대간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한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6) 가정 내에서 노인의 역할 갖기를 위한 프로그램

① 아래 세대 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배와 찬양하기

② 성경이야기를 함께 사는 아래세대 연령에 이야기 해 주기 위한 적합한 내용들과 이야기방법 배우기

③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법 배우기

④ 성경 적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 듣기

현 시대는 성경 적으로 가정이 살아야 함을 깨닫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 가정 사역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부부가 맞벌이해야 하고, 가정은 점점 깨어지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교회가 노인을 집밖으로보다는 교회에서 배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성경 적으로 세워주는 일과 다른 가정을 멘토 할 수 있도록 까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갔으면 한다. 또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성경 적 효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

III 결 론

.에레미야17:7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17:9,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을 하나니

- .로마서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느니라
- .로마서 8:13,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 .로마서8:20,21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 .로마서11:33,36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빌립보서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노인 자신의 신앙점검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칭찬 받고 상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또한 다음세대에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교회프로그램에서 개발하여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뜻대로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영역, A.W.핑크지움, 하나님의 신성, 서울, 엠마오, 1987.
- 김든렐역, 루우엘 하우스지움,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역사.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 김선일역, 덕 카이스지움,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 서울, 아가페, 1994.
- 김성민역, 아놀드B.콕지움, 인간의 영과 성령,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김영권역, 게일잭슨, 왈터 헨리슨, 생활적용과 생활훈련,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김유배역,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서울, 엠마오, 1990.
- 김재영역, 마이클윌킨스지움, 그분의 형상대로, 서울, IVP, 2000.
- 김정식역, M.브레인 스미스지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갈등, 서울, 아가페, 1992.
- 김정우역, 리차드L.프렛지움, 하나님의 디자인, 서울, 엠마오, 1993.
- 김태곤역, R.C. 스프룰, 자유의지와 믿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민혜경역, 찰스스탠리지움, 용서, 서울, 두란노, 1991.
- 박영민역, 폴스티븐스지움, 현대인을 위한 영성, 서울, IVP, 1996.
- 박영선, 믿음의 본질, 낮은 울타리, 서울, 2001.

, 하나님의 열심, 서울, 새순출판사, 1986.

서종대역, 에릭 사우어지움, 만물의 영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서창원역, 마틴로이드존스, 십자가. 서울, 두란노, 1987.

심명구, 강의노트, 신자의 형태 분석, 영 성 목회상담학술원, 2002.

, 강의노트, 아브라함의 영 성, 영 성 목회상담학술원, 2002

윤명석역, 대로우 밀러지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1998.

윤병화역, 데이빗A.씨멘스지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서울, 두란노, 1992.

윤종석역, 필립 얀시지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서울,IVP, 1999.

이기문역, 크레이그 다익스트라지움, 비전과 인격,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이 달역, 존J. 필치/부르스J. 말리나지움, 성서언어의 사회적 의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이상신역, 팀 마샬지움, 내면으로부터의 자유, 서울, 예수전도단, 1988.

이상원역, 프랑소아 페벨롱지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75.

이재신역, 미우라 아야꼬지움, 성서에서 본 인간의 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이종수역, 도날드 거스리지움, 하나님, 인간과 세계, 서울, 성서유니온, 1988.

이한상역, 존 베벨지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서울, 크레도, 1999.

임금선역, 윌리엄 거널지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서울, 예찬사, 1991.

전의우역, 제임스 보이즈지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정진환역, 찰스 스윈돌지움, 은혜의 각성, 서울, 죠이선교회, 1992.

정동섭역, 빌리그래함지움, 하나님과의 평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3.

, 게리 콜린스지움, 폴 투루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서울 IVP, 1998.

차호원역, 데니스B.간지움, 사랑과 용서, 서울, 신앙계, 1988.

채영삼역, 노만 그럽지움, 제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서울, 두란노, 1993.

최기운역, 찰스 캡스지움, 당신의 말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6.

최치남역, 토마스 아켄퍼스지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한화용, 정옥배역, 존스포트,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IVP, 서울 1993.

한화룡역, 존 맥아더지움, 참된예배, 서울, 두란노, 1986.

황영철역, 리차드 미들톤.브라이언 왈쉬공저, 그리스도인의 비전, 1987.

홍치모역, 레널드 맥컬리. 제람바스지움,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IVP, 1992.